

다산포럼

김민환



송건호. 군부세력 앞에 거의가 무릎 꿇었지만 그는 끝까지 울퉁한 언론인의 자세를 지켰다. 그런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발족한 것이 정암언론문화재단이다.

이 재단은 해마다 사표가 될 만한 언론인을 가려 송건호언론상을 수여하는데, 올해는 제6회 수상자로 민족일보 사장이던 조용수를 선정해, 17일 유족이 참가한 가운데 시상식을 거행했다.

조용수가 민족일보 창간호를 낸 것은 1961년 2월 13일이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기 전 처음 치른 1960년의 7·29 총선에서 혁신계는 참패를 면치 못했다. 당대 진보주의자들은 혁신계 정당의 대통합과 진보주의 신문 창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조용수는 두 과제 가운데 신문에 창간을 전담하기로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민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나섰다. 그는 연세대에 재학하다 1950년에 일본으로 밀항해 메이지대학에 다니다가 학업을 그

만두고 민단체 기관지 민주신문의 편집부장을 역임하며 재일 한인들과 폭넓게 교류해온 터라, 많은 유자들이 모금운동에 호응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는 민족

일보를 세우고 사장에 취임했다. 민족일보가 지면을 통해 역설한 것은 '중립화통일론'이다. 민족일보는 통일이 안전하지 못한 유조선, 또한 충돌이 예견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중립화통일론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론과는 지향점이 달랐다. 고려연방제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겨냥한 것이라면 중립화통일론은 좌와 우를 초월(超越)하는 제3의 통일된 중립지대를 상

대적이었다. 그런데도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군부는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하고 조용수를 재판에 회부했다. 사법당국은 중립화통일론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그 기본노선이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결론적으로 복고를 고무 동조한 것이라고 판단해 조용수에게 극형을 선고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961년 12월 21일 조용수를 처형했다. 만 31세의 꽃다운 나이에 조용수는 그렇게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갔다.

민족일보 조용수

정한 것이었다.

민족일보는 중립화통일론을 펴면서도 반소(反蘇) 반(反)김일성 노선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이승만과 같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독재자'로 하여금 단독정부를 세우게 하였다면, 소련 역시 '김일성과 같은 괴뢰적 인물'을 내세워 영토와 인민의 분열을 조장했으며, 재통일을 방해해왔고 더구나 전쟁까지 도발했다고 비난했다.

민족일보가 미국이나 이승만 세력에 비판적이었던 소련과 김일성 정권에는 적

군부는 왜 조용수를 죽였는가? 박정희 군사정부는 당시 두 가지 급박한 과제에 당면해 있었다. 그 하나가 대학생과 진보주의자들의 저항 잠재력을 뿌리 뽑는 것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박정희 자신과 그 척척의 공산당 관련 경력에 기인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민족일보와 조용수는 군부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타협 가능한, 공존 가능한 아이디어는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는 이런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은 타협주의자였던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누명을 씌워 처단했다. 박정희 시대에도 무수한 사람이 용공분자로 몰려 감옥으로 가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대안에 대한 포용성 결핍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17일 조용수가 사상에 대해 썼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박정희가 지금 생존해 있다면 조용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려대 신방과 교수·다산연구소 제6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박관 대선정국 뒤흔드는 '이명박 특검법'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BBK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이 검찰의 수사 결과나 정치권의 공방을 떠나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특검은 대선 막판 핵심 변수로 부상했고 향후 정국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게 됐다.

특검은 이 후보의 BBK 동영상이 공개된 마당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동영상에는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했다"면서 "이미 28.8%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 후보의 육성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BBK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던 이 후보의 발언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이 후보의 '발언'을 공격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국민적 의혹 확산 등을 들어 BBK 사건에 대한 재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를 시사했다. 정치공세로 규정해왔던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것도 부정적 여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법은 내년 2월 대통령 취임이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했지만 활동시한은 최장 40일에 불과하다. 수사인력을 크게 늘렸다고 하지만 특검법안의 공포와 특검 임명, 준비 및 수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BBK 사건은 이미 검찰의 수사를 거친 사안이다. 정치권은 BBK 동영상을 놓고도 서로 정치공작이라며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검법이 제정된 만큼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특검이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발휘해 모든 의혹을 따져내야 할 수 있다.

정치권은 특검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공방이 아니라 얽히고 설린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다. 당사자인 이 후보도 법적 및 도덕적 책임이 드러났을 경우를 예상하고 유권자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근절대책 없다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1천290명의 명단이 17일 지자체별로 공개됐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고액·상습 체납자는 광주 45명, 전남 35명 등 80명에 달한다. 체납액도 광주 110억원, 전남 237억9천400만원 등 347억9천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세입납부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 때문에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서민들만 하할할 따름이다.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보다 상습적인 사재가 많다. 광주·전남지역 고액 체납자 80명 가운데 60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악질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는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빼돌린 채 수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고액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세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금체납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많고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 조세정의의 바로 세울 수 없다. 특히 지방세 체납은 가뜰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체납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나 다름없다. 악질 체납자는 검찰에 고발해 각종 불이익을 받게 해야 마땅하지만 당해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고발하게 돼 있다. 세금 한 톨 안내도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버티볼 때까지 버틴다는 것이다.

고액 체납자는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금융상의 불이익은 물론 형사적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고질 체납자들이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받을 불이익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이고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스포츠 세계에 빠지는 것은 이렇듯 막판까지 승부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짜릿함 때문인데, 마지막 중앙감을 견뎌내지 못한 선수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만다.

마지막에 약한 대표적 '새가슴'이 프로골프 선수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다. 얼마 전에 아내에게도 평범하게 4온에 2퍼트면 보기로 우승이었는데, 평정심을 잃고 트리플 bogie를 했다. 늘 타이거 우즈에 밀려 2인자에 머물고 있는 그의 한계였다.

지난주 수원에서 열린 세계당구대회에선 큰 이변이 일어났다. 한국랭킹 20위에 불과하고, 세계랭킹에는 아직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충복(34) 선수가 세계 1위, 스리쿠션의 황제 토브론 브롬달(스웨덴)을 꺾었다.

'주눅들지 않고 내 공 하나하나에 총살했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피겨그랑프리 시니어 2연패의 쾌거를 이룬 김연아(17)도 도종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당연히 짧은 파파트가 들어가지 않았다. 어니 엘스도 지난 10일 열린 골프대회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2타차 선두인 그는 마지막 18홀(파5) 세컨샷을 놓고 고인했다. 잠시 후 안전한 3온 대신 팬들에게 멋진 2온을 보여주기로 하고 샷을 했으나 공이 물에 빠져버렸다. 문

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해저드 1벌타 받고도 평범하게 4온에 2퍼트면 보기로 우승이었는데, 평정심을 잃고 트리플 bogie를 했다. 늘 타이거 우즈에 밀려 2인자에 머물고 있는 그의 한계였다.

세계 1위, 스리쿠션의 황제 토브론 브롬달(스웨덴)을 꺾었다. '주눅들지 않고 내 공 하나하나에 총살했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피겨그랑프리 시니어 2연패의 쾌거를 이룬 김연아(17)도 도종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당연히 짧은 파파트가 들어가지 않았다.

'193cm, 95kg'의 엘스가 가슴들레는 크했지만 '163cm, 43kg'의 김연아가 배짱은 훨씬 더 큰 것 같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정신력의 승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최지현



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상크레인인 충돌하여 발생한 사상 초유의 원유유출 사고로 서해바다와 연안이 대구기를 맞았다. 12년 전 사상 최악의 유류 오염사고라 불렸던 여수에 서의 GS정유(당시 호남정유)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때보다 2배 많은 1만 이상의 원유가 서해바다에서 유출된 환경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최악의 환경재앙을 극복하는데 온 국민이 힘을 보태고 있다. 기름을 제거하는 방제활동 자원봉사자만 사고 10 일째인 현재 연인원 16만 명이 넘고, 방제활동에 도움이 될 물품 기증과 재정적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씨프린스호의 기름유출 사고로 큰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 엄청난 사고의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와 충돌에 안전하지 못한 유조선, 또한 충돌이 예견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에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의 피해액은 72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2년이 지난 아직도 당시의 기름의 흔적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잘 발달되어 있는 갯벌과 모래사장 기름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영항이 지속될 가능성 크다. 따라서 갯벌이 손상되어 앞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을

환경 대재앙,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보며

광주·전남에서도 민간단체, 관공서, 기업, 시민들이 태안 사고의 방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 15일 방제활동 봉사자를 짧은 기간 동안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 인원보다 훨씬 많은 신청이 있었고 지금도 봉사활동에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접 가서 봉사활동을 못해 미안하며 물품기증과 향후 지원활동 계획을 묻는 전화로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없이 이어지고 있는 소중한 참여 물질 풍경에 가려 사고의 책임문제와, 환경적 피해에 대한 내용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중한 바다와 이웃의 아픔을 내 일처럼 걱정하는 아름다운 활동만 강조될 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런 환경재앙에 대한 대책과 대처하는 자제의 미흡함에 대한 비평의 소리가 묻히고 있다.

가정을 할 경우 벌써 4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자원활동으로 복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복구에 참여하는 인력 그리고 장비, 물품, 복구 과정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불가피하며 뿌러지고 있는 방제용 유화제에 대한 피해와 대책도 간과되고 있는 점 또한 문제이다.

소중한 생태계 보고이며 우리 사람들에게 화수분처럼 한없는 자원을 베풀어 주던 바다와 갯벌이 악취를 풍기는 검은 기름에 무방비로 고초를 겪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만큼 다시는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름유출 재앙 말고도 또 다른 환경재앙으로 우리 생태계와 이웃이 아파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 팀장>

레스토랑 크리스마스 바가지 샵 사라져야

올 크리스마스에는 일부 업소들의 얄팍한 바가지 샵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유명 패블리 레스토랑 등 식당가, 술집 등에서는 평소 가격보다 비싸고 음식 종류도 한정된 특별메뉴판을 제작한 채 영업 행위를 계속해왔다.

대부분의 시내 음식점, 술집 등에서 매년 이같은 영업 행위를 버티고 있어 있다. 일년에 한 번뿐인 크리스마스에 연인들, 가족들을 동반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특수를 누려보겠다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다. '담합'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해당 자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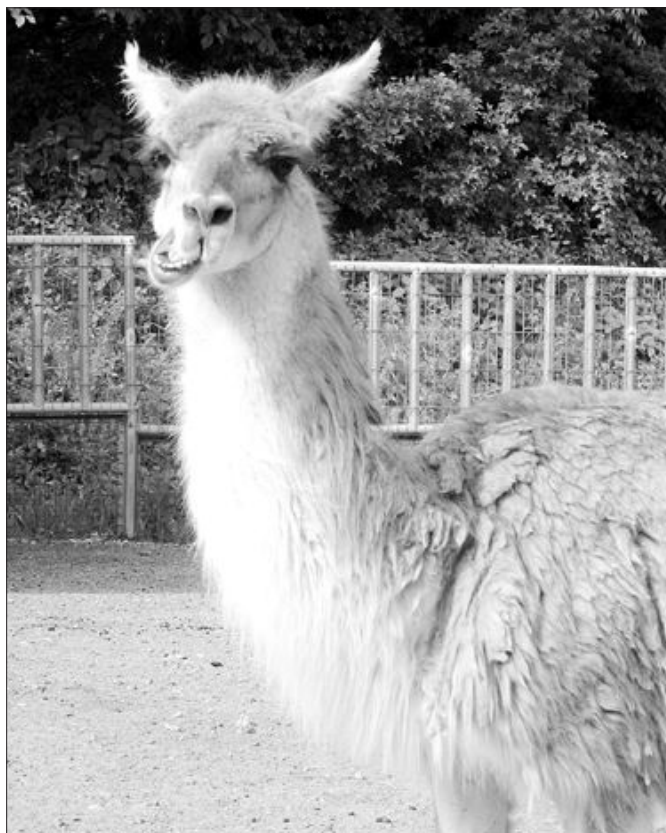
단체에서는 단속도, 계도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모른척 넘어가는 것인가.

크리스마스가 상인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바가지 샵을 부러도 당하는 날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특별한 날이라면 오히려 좀 더 나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치단체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 크리스마스에는 이같은 담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박성만·광주시 동구 운림동**



과나코의 되새김질은 '무기'다



초식동물하면 누구나 되새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코끼리·하마 같은 거대 초식동물이나 말·토끼 같은 활동량이 많은 동물들은 무거운 반추위(ruminant stomach·되새김 위)가 부담스러운 탓에 반추위를 가지고 있지도, 따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니 아무래도 소화 불량 증세가 나타나곤 한다.

하마나 코끼리는 늘 먹고 싸기를 반복하고 토기·말은 거대한 팽창이 마치 반추위와 비슷한 역할을 해 레미콘처럼 혼합하고 수분 재흡수를 반복하면서 마뎀나 딱딱하고 동근 똥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같은 소화 방법도 반추위보다는 나은 것이 아니다. 한 수 아래다. 아직 영양분이 남아있는 자신의 똥을 먹어 알뜰히 영양분을 재흡수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도 되새김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과나코는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로, 지금 되새김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슴이다. 낙타과의 동물들 역시 반추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소처럼 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되새김질을 하는 위는 4개의 위가 완벽하게 구분돼야 하지만 낙타 위는 해부학적으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

특히 낙타의 제1위에 들어간 풀은 미생물 공장에 들어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 영양분을 재흡수하기 위해 낙타들은 이 지독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을 감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냄새는 때로는 적들을 향한 무기로 사용된다.

침뱀기가 바로 그것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hvnat@hanmail.net

이혼 이유로 사표 강요 부당하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선배 언니가 5년 전 사내 결혼을 했다. 두달전 이혼한 뒤 회사 간부에게 "같은 회사에서 전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것이 불편할테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

사생활이고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느닷없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다. 사내 결혼과 이혼이 회사생활에 지장을 준 것이

전혀 없는데, 이혼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어야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

물론 선배는 "내가 왜 회사를 그만뒀어야 하느냐"면서 사표를 쓰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과 불만을 겪는다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폐쇄적이고 낙후했다는 증거다. 이같은 편견이 시급히 없애져야 한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사업부	2200-626
경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F A X	222-0118)
		광고부	2200-521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